

[건강·의료]

光州日報·전남대병원 공동 주최



데미가 있는 시민건강 강좌

치매 조기진단 왜 필요한가

M 의료 라운지 Medical lounge

광주시치과의사회 구강보건 사생대회

광주시치과의사회와 광주시립 미술관은 공동으로 어린이 날인 5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옆 천 인천탑 일대에서 '어린이날 기념 구강보건 사생대회 및 백일장'을 갖는다.

스타-중학교 학생 ▲글짓기-초·중학교 학생 등이다. 작품내용은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고취시키는 내용이여야 한다. 또 치아건강 식품을 섭취해 구강질환을 예방하거나 구강보건에 대한 체험담 및 생활수기이면 된다.

건강보험 광주본부 직원 학습토론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는 25일 본관 회의실에서 지역본부 및 광주지역 지사 직원 등 10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건강보험 발전방향과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1-up day'를 실시하였다.



서 장애인에게 고가품을 청구도 못하고 저가품을 제공하는 등 업체의 불법행위가 성행한 점과 관련, 보장구 지급제도의 개선방안을 가지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전남대 치과병원 몽골 등 학생 연수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가 외국 연수생들에게 선진의료기술의 배움터로 각광 받고 있다. 지난해에 2명의 몽골 치과의사들이 1년간 연수를 받은 데 이어 현재는 방글라데시와 몽골에서 온 3명의 치과의사들이 임플란트 치료와 구강암 치료 등을 배우고 있다.

이외 각종 구강악안면 분야의 수술도 직접 참여시키고, 임상 의술과 연구활동 등에서 전공의들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연구하면서 선진 의료 지식과 수술 기법들을 습득하게 하고 있다. 또, 8년 전부터 매년 방글라데시로 의료봉사활동을 펼쳐 청이 환자들에게 구순구개열 수술을 무료로 시행해 주고 있다.

원인질환 찾아내 치매 늦추고 치료

치매는 조기진단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말하면, "치매는 한번 걸리면 치료할 수 없고, 노화과정에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병인데 조기진단해서 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 이번 기회에 치매의 정의, 원인질환, 치료 및 관리, 그리고 조기진단의 방법과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알츠하이머·우울증 등 원인질환 50여종 위험인자 조기 치료면 발병 57%로 낮아져

◇치매의 정의와 원인질환=후천적인 뇌병변으로 인한 다발성인지장애(기억장애, 실어증, 실행증, 실인증, 집행기능장애 등)로 인해 일상 생활 수행능력의 저하 또는 장애가 초래된 것을 말한다.

치매는 단일 질환의 진단명이라기 보다는 뇌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원인 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하나의 증후군이다.

치매의 원인질환들은 지금까지 보고된 바에 의하면 약 50여종에 이른다. 대표적인 원인질환들에 따라 분류하면 ▲퇴행성 신경질환(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루이체치매, 전두측두변성, 진행핵상마비 등) ▲혈관성 치매(다발경색치매, 광범위백색질화, 단발경색치매 등), 대사성 질환(갑상선저하증, 신장기능상실, 간기능상실 등) ▲만성감염(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결핵, 신경매독, 프리온병 등) ▲두부외상과 광범위뇌손상(권투선수치매, 뇌외傷, 정상압뇌수두증, 무산소증후 등), 그리고 ▲정신질환(우울증, 정신분열병 등) 등이 있다.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질환들의 분포는 알츠하이머병이 약 35~75%로 가장 흔하고, 혈관성 치매가 약 12~40%로 두 번째로 흔하고, 전두측두 변성, 루이체 치매, 파킨슨병치매, 알콜관련 치매 등의 분포를 이룬다.

◇치매의 치료 및 관리=원인질환에 따라 결

정되지만 질병의 초기에 진단을 받으면 진행속도를 지연시키거나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원인질환을 교정할 수가 있다.

따라서 치매의 조기진단이 필요한 이유는 아래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가역적(원인을 제거하거나 교정하면 병전 상태로 회복되는) 원인질환들(대사성질환, 뇌종양, 정상압뇌수두증 등)에 의한 치매는 그 원인질환을 치료하면 치매증상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데, 치료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치매증상이 영구적으로 고착화 될 수 있으므로 치매 초기에 정확한 원인질환, 특히 가역적인 원인질환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반가역적 원인질환(뇌졸중 등에 의한 혈관치매)에 의한 경우에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위험인자를 조절함으로써 진행을 멈출 수 있다.

셋째, 비가역적(병전 상태로 회복될 수 없는) 원인질환(알츠하이머병, 전두측두변성, 루이체치매, 파킨슨병치매 등)에 의한 경우에는 초기부터 관리를 잘하면 질환의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고, 임상 단계별로 나타나는 증상(이상행동 등)을 조절함으로써 환자나 가족이 같이 지낼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즉, 조기진단과 더불어 적절한 치료 및 관리를 함으로써 질환의 말기에 필요한 요양시설의 입원기간을



전남대병원 강당에서 열린 '데미가 있는 시민건강 강좌'에서 김병채 신경과 교수가 치매의 조기 진단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전남대병원 제공>

단축시키기 위함이다.

◇조진 진단=근래에는 치매 전단계 상태를 조기에 진단하는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연구된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정상노인이 매년 치매로 진행되는 비율은 약 1~3%인데, 치매 전 단계인 집단은 매년 약 12~16%정도이고, 6년 후에는 80% 정도가 치매로 진행된다고 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약물투여 및 생활패턴의 변화(적절한 운동, 식생활의 변화, 위험인자의 조절 등)를 통해 치매로의 발병을 5년 정도 지연시킬 경우, 발병을 지연하지 못하는 경우보다 20년 후에는 치매환자의 비율이 57%로 낮아지게 되는 것으로 보고 했다.

그러므로 치매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적인 경과가 아닌 뇌병변으로 인한 임상증후군으로 질환의 초기에 정확한 원인질환의 진단과 이에 해당하는 적절한 관리 및 치료가 임상결과와 예후에 크게 영향을 끼치므로 조기진단이 필요하다.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는 방법은 초진시에 시행되는 정확하고 심도 깊은 문진 및 병력청취(보호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와 신체 및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 치매가 의심되면 ▲다양한 원인질환들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실 검사(갑상샘호르몬검사, 혈당, 간기능, 신장기능, 매독검사, 비타민 B12 등이 포함됨) ▲뇌의 고위 피질기능을 조사하기 위한 인지기능검사 ▲뇌내의 공간점유병변을 조사하기 위한 뇌영상(컴퓨터단층촬영 또는 뇌자기공명영상) 등이 있다.

치매의 조기진단이 필요한 이유는 가역적(치료 가능한) 치매의 원인질환을 알아내어 적절하게 치료하고, 반가역적 치매나 비가역적 치매의 원인질환을 조기에 알아냄으로써 위험요소와 생활패턴을 조절함으로써 질환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또한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를 발견해 치매로의 이행을 예방하는 데 그 이유가 있다. <김병채 전남대병원 신경과 교수> /정리=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국제보청기' (International Hearing Aids) with slogan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Advertisement for '대오온돌침대/카사갤러리' (Daewoonondol Bed/Casa Gallery) featuring furniture and home appliances with promotional text.

Advertisement for '2009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주택보급' (2009 New Renewable Energy Solar Home Subsidy) with details on government subsidies and contact for COSMOENG.